

研究論文

심청전 근원 설화의 전반적 검토 -元洪莊 이야기의 위상을 중심으로-

허 원 기*

-
- | | |
|----------------------|------------------|
| I. 문제제기 | IV. 판소리와의 관련성 검토 |
| II. 자료의 성격과 전승 시기 검토 | V. 맺음말 |
| III. 서사적 구성요소 검토 | |
-

I. 문제제기

조선후기에 형성된 <심청전>은 설화, 소설, 무가, 판소리 등 여러 방식으로 전승되었다. 개화기 이후로는 창극, 연극, 영화, 무용, 오페라 등 양식으로 재구성되어 전승되면서 우리 문화의 중요한 기층을 형성해 왔다. 이렇게 전승된 심청 이야기는 한국인을 울리고 웃기며 우리와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뿌리깊은 문화유산이며, 한국인의 심성 속에서 여전히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심청전>은 춘향전과 함께 한국 고소설 작품 가운데 가장 널리 읽혀지고, 가장 많이 연구된 작품이기도 하다. 이러한 소설 <심청전>의 성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說話小說’이라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판소리系 小說’이라는 점¹⁾이다.

그간 <심청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방대하게 축적되었다. 異本연구, 근원 설화론, 주제론, 배경 사상론 등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졌으며, 방법론에 있어서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전임연구원 한국 고전문학
1) 정하영, 「沈淸傳」, 『韓國古典小說作品論』, 집문당 (1997), 542쪽 참조

도 사회학적·정신분석학적·구조주의적 접근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특히 설화소설이라는 명칭을 얻기까지 한 <심청전>의 근원설화에 대한 연구는 여타 판소리계소설에 비해 매우 다양한 양상을 띠며 전개되었다. 심청전이야말로 이전의 다양한 설화들을 수용하여 재창조한 작품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청전의 근원설화로는 국내와 국외의 여러 설화들이 다양하게 거론되었다. 국내의 것으로는 ‘玉果縣聖德山觀音寺緣起說話’, ‘黃泉巫歌 바리공주’, ‘심청굿 무가 사설’, ‘孝女知恩說話’, ‘居陀知說話’ 등이 거론되었고, 국외의 것으로는 인도의 ‘專童子·法妙長者說話’, ‘目連尊者說話’, 일본의 ‘小夜姬說話’ 등이 거론되었다. 그리고 ‘심청이야기’가 孝行說話, 人身供養說話, 開眼說話, 再生說話 등 주로 네 가지 話素를 소재원천으로 활용하고 있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러한 근원설화 연구는 심청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기존의 근원설화연구는 단순한 대비고찰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설화와 소설의 관계가 유리되어 있다. 적어도 근원설화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설화와 소설의 유기적이고 직접적인 수순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 국외의 설화들이 과연 어떠한 경로를 통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거론된 다양한 설화들이 심청전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위상에서 수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름대로의 차등적 위상을 가지고 소설에 수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논의된 근원설화들을 서로 비교하여 그 대비적 위상을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요즈음 玉果縣聖德山觀音寺緣起說話에 나타나는 ‘元洪莊이야기’의 원자료가 새롭게 발견³⁾되었다. ‘원홍장이야기’는 심청전의 중요한 근원설화로 인정되던 바였으므로, 이 자료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원홍장이야기’가 여타 근원설화들 속에서 지니는 위상이 구체적으로 해명되어야 할 줄로 안다. 또한 설화가 소설화되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원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설화가 판소리계통의 소설로 변할 때에 작용하는 원리도 해명되어야 할 부분이다.

2) <심청전>연구의 역사와 전반적인 동향은 鄭夏英의 『沈淸傳』, 『古典小說研究』 서울 일지사(1993) 과 인권환의 『심청전 연구사와 그 문제점』, 『심청전 연구』, 태학사 (1999) 등에서 거듭 논의된 바 있다.

3) 최근 순천 송광사 박물관 수장고에 소장된 목판본이 새롭게 발견되었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에 유의하면서 필자는 우선 ‘원홍장이야기’를 여타 심청전 근원설화와 비교하여 그 전반적 위상을 점검하고자 한다. 그리고 ‘원홍장이야기’가 판소리계 소설로 변환될 수 있는 소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도 해명해 보고자 한다. 즉, ‘원홍장이야기’를 <심청전>의 두 가지 특성인 ‘설화적 성격’과 ‘판소리적 성격’에 비추어 해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원홍장이야기’의 설화적 위상을 점검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고, ‘원홍장이야기’의 판소리적 성격을 해명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인 셈이다. 첫 번째 과제는 전승자료의 성격과 전승시기의 검토, 서사적 요소들의 구성요소들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두 번째 과제는 원홍장이야기와 판소리의 성격을 비교 검토하는 방식으로 해명해 보고자 한다.

II. 자료의 성격과 전승 시기 검토

지금까지 심청전의 근원설화로 거론되는 국내설화로는 ‘玉果縣聖德山觀音寺事蹟⁴⁾의 원홍장이야기’, ‘黃泉巫歌 바리공주’, ‘심청곳 무가 사설’, ‘孝女知恩說話’, ‘居陀知說話’ 등이 있다. 이들이 전승되는 방식과 시기를 검토하면 심청전의 전승 양상에 비추어 양자의 관련양상이 더욱 명확해 질 수 있다.

먼저 ‘원홍장이야기’를 살펴보자. ‘원홍장이야기’는 순천 송광사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玉果縣聖德山觀音寺事蹟’에 실려 있다. 이것은 목판본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조선총독부에서 1911년에 간행한 『朝鮮寺刹史料』에도 활자화된 것이 실려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목판본 원본의 초서를 활자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판독상의 오류 및 미판독 글자들이 많아서 그 줄거리만을 대략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므로 우선 목판본 원본을 근거로 草書를 재판독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태⁵⁾이다. 이 자료는 擁正 己酉年(1729) 6)에 송광사의 白梅禪師가 觀音寺의 長老인 優閑禪師의 구술을 듣고 이를 정리하여 수록했다⁷⁾고 한다.

4) 이하 사적기로 약칭함.

5) 판독한 내용은 논문의 말미에 부록으로 실었다.

6) 조선의 영조 5년에 해당한다

‘事蹟記’의 내용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 전반부는 寺刹緣起說話의 성격을 지닌 ‘원홍장이야기’이며, 후반부는 절이 생긴 후 중창했던 기록과 ‘全羅左道玉果縣觀音寺遊山錄’을 수록하였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원홍장이야기’는 전반부이며, 관음사의 사찰연기설화에 액자형식⁸⁾으로 담겨진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사찰연기설화라는 것은 불교의 전파와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불교설화의 일종으로, 사찰이나 암자등의 창건유래나 절터를 잡게된 유래, 절 이름 命名 유래에 관한 설화⁹⁾이다. 이것은 ‘원홍장이야기’가 바로 관음사라는 사찰이 형성되게된 배경을 서술하기 위한 기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원홍장 이야기에는 불교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원홍장 이야기의 불교적인 성격은 심청전의 불교적인 성격과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그 보다 정도가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한 사찰연기설화는 신화나 민담보다는 전설에 가깝다. 전설의 시공간은 신화나 민담에 비해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며 구체적인 증거물을 제시하려 한다. 원홍장 이야기에 이런 성격이 잘 나타난다. 그래서 ‘晉國 永康丁亥¹⁰⁾ 五月’, ‘忠淸道 大興縣’, ‘大興縣 弘法寺’, ‘蘇浪浦’, ‘甘露寺 앞 포구’, ‘豐德縣 擎天寺’, ‘樂安 땅 斷橋 곁’, ‘玉果縣’ 등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원홍장은 관음의 화신으로 지칭¹¹⁾된다. 이렇게 사찰연기설화이기 때문에 불교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며,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시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내의 심청전 근원설화와는 변별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원홍장이야기’는 그 전승 시기와 전승자, 전승지역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擁正 己酉年(1729)에 송광사의 白梅禪師가 觀音寺의 長老인 優

7) 崙擁正己酉暮春, 碧梧門人白梅子, 因優閑子之所述, 芟繁增削而書 (『玉果顯聖德山觀音寺事蹟』, 9a~9b 면)

8) 액자구조는 헤르베르트 자이들러(Herbert Seidler)에 의해 시도된 이론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선의 「액자소설의 원질과 계승」, 『한국단편소설의 연구』, 서울: 일조각 (1979) 95쪽에 소개된 바 있으며, 사재동의 『불교계 국문소설의 형성과정 연구』, 아세아문화사 (1977) 18~22쪽과 홍순석의 「寺刹緣起說話研究」, 『說話文學研究(下)』, 단국대학교출판부, (1998)에서 논의된 바 있다.

9) 홍순석, 앞의 글 291쪽

10) 永康년간은 晉 惠帝때 이며 300년에 해당하고, 정해년은 267년에 해당하므로 양자 중 하나는 착오가 있는 듯 하다.

11) 蓋弘莊與聖德俱是觀音隨應之身歟(『事蹟記』, 8a~8b)

閑禪師의 구술을 듣고 이를 정리하여 수록했다¹²⁾고 했는데, 이를 통해서 전승시기와 전승지는 물론이려니와 전승지역도 추정해 볼 수 있다. ‘원홍장이야기’가 기록된 시기를 1729년이라고 본다면 ‘원홍장이야기’는 아마도 그 이전부터 인근지역에 널리 전승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찰연기설화는 대체로 그 이전에 전하던 설화들을 수용하여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홍장이야기’의 전승시기는 적어도 18세기 초반기 이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심청전이 성립하기 이전¹³⁾의 시기이므로 심청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 그 점에서 ‘원홍장이야기’는 심청전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더욱 긴밀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

설화가 소설화될 경우에는 첫째, 文字定着化가 이루어지며, 둘째, 多量化되며, 셋째, 具體化되고 寫實的으로 서술되며, 넷째, 個人化되며, 다섯째, 증보와 삭제가 함께 일어난다는 점들¹⁴⁾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원홍장이야기는 특히 주목할 만 하다.

첫째, ‘사적기’는 설화가 문자로 정착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송광사의 白梅禪師가 觀音寺의 長老인 優閑禪師의 구술을 듣고 이를 정리하여 수록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소설화되고 있는 설화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원홍장이야기는 다른 설화에 비해 등장 인물의 수가 많고 그에 따라 사건이 복잡해지며, 배경이 구체적으로 서술되는 등 설화가 多量化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등장인물과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사실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넷째, 집단전승에서 개인전승으로 전승이 개인화되어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구전되던 설화가 문자로 정착되면서 상대적으로 개인화 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증보와 삭제가 함께 일어나고 있는 점인데, 이것은 優閑禪師의 구술을 증보하거나 삭제(芟繁增削)하여 썼다는 白梅禪師의 기록¹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사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문자화되는 과정에서

12) 崑擁正己西暮春, 碧梧門人白梅子, 因優閑子之所述, 芟繁增削而書. (『玉果顯聖德山觀音寺事蹟』, 9a~9b 면)
 13) 심청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趙秀三의 『秋齋紀異』에 나타나는데, 조수삼은 1762년에 태어나 1849년에 죽었다. 그러므로 심청전은 대략 18세기 중반 무렵까지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4) 崔來沃, 「說話와 그 小說化 過程에 대한 構造的 分析」, 『국문학연구』 제7집, 서울대 국문학연구회, (1968) 114~117쪽 참조.
 15) 崑擁正己西暮春, 碧梧門人白梅子, 因德閑子之所述, 芟繁增削而書. (『玉果顯聖德山觀音寺事蹟』,

창조적 개작이 일어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소설화되어 가는 것이다.

심청전과 관련하여 거론된 두 번째 근원설화로는 黃泉巫歌가 있다. 황천무가는 죽은 이의 극락왕생을 위하여 무속제의에서 巫覡에 의해 구송·전송되고 있는 무가(6)들을 말한다. 이들 중 심청전과 관련을 지닌 것으로 논의된 것으로는 오구굿계 서사무가 <바리공주>가 있다.¹⁷⁾ <바리공주>는 전국적으로 전송되고 있는 서사무가로, 일명 ‘바리테기’, ‘오구풀이’, ‘칠공주’, ‘巫祖전살’이라고도 한다.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고 저승으로 인도하기 위해 베풀어지는 오구굿, 진오귀굿, 씻김굿 등의 무속의식에서 구연된다. 서사적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판소리의 창자인 광대가 무속적 유대를 가지고 있고, 무가가 판소리와 음악적 측면에서 공유하는 면이 적지 않다는 점을 볼 때, 심청전과 일련의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설 심청전을 읽거나 판소리 심청가를 듣는 이들의 태도는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고 저승으로 인도하려는 의도에서 마련된 서사무가 <바리공주>는 죽음과 관련된 종교적이며 신화적인 기능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¹⁸⁾ 그러므로 오락과 흥미와 교훈을 본격적으로 추구하는 소설이나 판소리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심청전의 경우는 판소리보다 소설이 선행했다는 견해가 굳어지고 있다. 판소리 보다 소설이 선행했다면, 무가가 소설화하는 방식이 해명되어야 할 터인데, 그것을 해명하는 것은 매우 요원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판소리의 무가적 기원과 관련하여 심청전의 기원을 탐색하는 작업은 설득력이 약하다.

세 번째로 거론할 수 있는 근원설화로는 ‘심청굿 무가 사실’이 있다. 심청굿은 동해안 일대에서 무당들이 주재하는 洞祭인 豊漁祭 또는 別神굿에서 행해지는데, 이때 무녀에 의해 심청가가 창으로 불려진다. 이 자리에서 심청가는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 어업을 할 때, 어부들의 눈망울이 맑게 되어 어업을 잘할 수 있게 해주는 주술적인 기능을 한다¹⁹⁾고 한다. 그렇지만 심청굿 무가의 사실은 무속신화로서

9a-9b 면

16) 金泰坤, 『黃泉巫歌研究』, 서울 창우사(1966), 21 쪽 참조

17) 김태곤, 앞의 책, 32쪽.

18) 물론 서사무가에서도 오락적인 기능이 경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능상 종교적인 측면이 중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다.

19) 이것은 소설에서 심청이 풍량을 멎게 하기 위해 희생제의를 치른 것과는 다른 점이다.

의 성격은 약하고 한 편의 구비서사시로서 노년층 여성에게 인기가 높은 자료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 자료는 소설 심청전이나 판소리 춘향가와 내용이 거의 같기 때문에 주목을 끄는 자료이다. 그러나 심청곳의 심청무가는 서사무가 바리공주와 같은 류의 자료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무가와 판소리, 혹은 무가와 소설의 선후관계를 실증적으로 해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수신에 대한 희생제의는 무속제의로서 오랜 전통을 지닌 것으로 생각되나, 구송하는 심청곳무가의 사설은 오히려 소설이나 판소리로부터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심청전에 선행하는 심청전의 근원설화로 판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네 번째로 거론할 수 있는 근원설화로는 ‘孝女知恩說話’가 있다. 이 설화는 『三國史記』에 전해지는데 같은 이야기가 『三國遺事』에는 ‘貧女養母’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삼국사기에서는 딸이 몸을 팔아 어머니를 봉양하고 그에 대해 사회적으로 보응을 받는 효행설화로 끝나고 있지만, 삼국유사에서는 왕이 하사한 집을 절로 삼아 兩尊寺라 하였다는 사찰연기설화가 부연되어 있다. 삼국사기는 유교적 덕목인 효를 선양하기 위한 의도에서 효행부분에 중점이 두어진 반면, 삼국유사는 불교적 성격 때문에 사찰연기설화가 부연된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는 1174년에, 삼국유사는 1281년경에 편찬된 것으로 그 연대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바리공주’·‘심청곳 무가 사설’과는 다르고, ‘원홍장이야기’와는 그 성격이 같다. 심청전보다는 먼저 전승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심청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료이라는 점은 ‘원홍장이야기’와 동일하다. 다만 시기적으로는 ‘원홍장이야기’가 ‘효녀지은설화’보다는 판소리와 가까운 시기에 전승되었다는 점이 다르다.

다섯째로 들 수 있는 자료는 ‘居陀知恩說話’이다. 이 설화는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있다. 연대가 분명하고 심청전보다 이전에 전승되던 자료이므로 위의 ‘孝女知恩說話’와 성격이 유사하다.

국외의 근원설화로는 인도의 ‘專童子·法妙長者說話²⁰⁾, 目連尊子說話, 일본의

20) 法妙童子라고도 지칭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法妙童子라는 명칭은 김태준의 『조선소설사』에서 서술된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는데, 김태준의 그 다음의 서술내용을 자세히 보면 法妙長者가 맞는 명칭임을 알 수 있다.

‘小夜姬說話’ 등이 거론되었다. 인도의 佛典說話인 ‘專童子·法妙長者說話’, 일본의 ‘小夜姬說話’ 등은 김태준이 거론한 바²¹⁾ 있다. 그러나 불전설화인 專童子·法妙長者說話의 문헌적 근거를 밝히지 않아 그 문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일본의 사요히메(小野姬)설화는 이와 다르지만 이 설화가 심청전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전승되었다는 증거를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이는 ‘專童子·法妙長者說話’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설화가 우리나라에서 유통되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들이 심청전의 근원설화로 작용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승된 것으로 알려진 국외의 근원설화로는 目連尊者說話가 있다. 목련존자이야기는 『目連經』이 전해지면서 우리나라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고려 예종 원년(1106)에 孟蘭盆齋를 올리고 명망있는 중을 불러 目連經을 강의했다는 기록²²⁾이 보인다. 그 후로 목련경은 널리 유포되었으며, 목련경은 우리나라 어느 절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흔한 경전이 되었다. 목련경은 위에서도 말했지만 우란분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란분재는 거꾸로 매달린 듯한 지옥의 고통에서 선망 부모들과 유주무주한 고히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불교행사²³⁾이며 일명 백중이라고도 불렸다. 이때에 목련경은 講唱형식으로 불려진 듯 하다. 그리고 이러한 목련경의 강창은 판소리의 전승방식과 비교해볼 때 형식적으로 매우 유사했던 것²⁴⁾으로 여겨지므로 심청전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III. 서사적 구성요소 검토

소설과 판소리에 나타난 심청이야기는 孝行說話, 人身供養說話, 開眼說話, 再生

21) 김태준, 『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145~150 쪽

22) 『高麗史』, 『世家』12, 睿宗 元年 七月 癸卯 甲辰條 참조

23) 박광수, 「韓國 目連傳承의 流通樣相」, 『孟蘭盆齋와 目連傳承의 文化史』, 중앙문화사(2000), 403 쪽 참조

24) 이점에 대해서는 김학주, 「중국의 강창문학과 판소리」, 『동아문화』6집,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1966)과 성현자, 「판소리와 중국 강창문학의 대비 연구」, 『진단학보』53·54, 진단학회 (1982) 및 이수웅, 「심청가와 강창문학의 관계고」, 『안동문화』3, 안동대 안동문화연구소 (1982)등에서 논의된 바 있다.

說話 등 주로 네 가지 話素²⁵⁾를 중요한 소재원천으로 하여 구성되었다. 우선 네 가지 화소에 비추어 이들 근원설화들을 심청전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등장인물들의 양상을 통해 각 설화들의 친소관계를 검토해 보려 한다.

우리나라의 효행설화들은 대체로 희생효도이야기로 나타나는데, 그 사건전개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²⁶⁾과 같다.

① 효자(또는 효녀)

→ ② 희생(가장 소중한 것을 바침)

→ ③ 기적(또는 협조자)

→ ④ 부모의 문제 해결

‘원홍장이야기’는 아래와 같이 이러한 효행설화의 사건전개 과정에 온전히 부합하는 효행설화의 화소를 지니고 있다. 즉 다음과 같이,

① 효녀(원홍장)

→ ② 희생(자기 몸을 판다)

→ ③ 기적(중국 사신을 만나 황후가 된다)

→ ④ 부모의 문제 해결(盲父가 눈을 뜬다)

의 과정을 밟으며 사건이 전개된다. 또한 자기 몸을 佛前에 바친다는 점에서 人身供養說話의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몸을 바쳐 아버지의 눈을 뜨게 했다는 점에서 開眼說話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다만, 원홍장은 이승의 세계를 떠나 저승의 세계를 다녀오는 것이 아니므로 再生說話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가난한 맹인의 딸이 황후가 된다는 설정은 그가 이승에서 신분적으로는 죽었다 살아나는 정도로 큰 변화를 겪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재생

25) 최운식은 그의 『沈淸傳研究』, 집문당 (1982)에서 ‘胎夢說話’를 추가했으나, 우리나라 일대기형식의 전기소설에는 태몽설화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태몽설화를 심청전의 근본적이며 특징적인 화소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기에 여기에서는 거론하지 않는다.

26) 최래옥, 「심청전의 총체적 분석」, 『심청전 연구』, 태학사(1999), 46 쪽 참조

설화의 요소를 온전히 갖추지는 못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원홍장이야기’는 심청전의 세 가지 화소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온전히 구비하고 있다. 일단 화소별로 볼 때, ‘원홍장이야기’는 심청전과 매우 친근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등장인물들의 형상도 ‘원홍장이야기’와 심청전은 매우 유사하다. 효녀 심청과 원홍장, 심봉사와 원봉사, 송나라 황제와 진나라 황제, 몽은(은)사 화주승²⁷⁾과 대홍사 화주승 法空, 중국 사신과 남경 船人 등이 서로 같은 서사적 기능을 담당한다. 다만 심청전에 등장하는 뽕떡어미, 장승상부인, 용왕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그러나 경관계열 심청전에는 뽕떡어미와 장승상부인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할 때, ‘원홍장이야기’와 심청전의 인물구성은 매우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나타난 원홍장의 모습에는 효녀의 모습과 동시에 중생들을 구제하는 觀音菩薩의 형상이 투영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黃泉巫歌 바리공주 이야기’도 전형적인 효행설화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아래와 같이,

①효녀(바리공주)

→②희생(죽어서 저승으로 간다)

→③기적(저승의 神藥을 얻는다)

→④부모의 문제 해결(죽은 부모를 살린다)

와 같은 효행설화의 전개과정을 온전히 갖추고 있다. 그리고 비록 신에게 자신의 몸을 제물로 직접 바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부모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고, 저승의 여러 신들을 위해 몸을 던져 봉사했다는 점에서 人身供犧說話의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강하게 나타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죽어 저승에 갔다가 돌아오므로 再生說話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바리공주의 부모는 당초에 맹인이 아니었으므로, 開眼說話의 요소는 나타나지 않는다. 요컨대, 효행설화와 재생설화 화소는 온전히 나타나고, 인신공희화소는 약하게 나

27) 경관계열에서는 ‘명월산 운심동 개법당 화주승’으로 나타난다.

타나며, 개안설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으로 보면 ‘바리공주이야기’는 ‘원홍장 이야기’에 비해서 심청전과의 화소적 근접성이 떨어진다

등장인물의 구성에도 유사점은 있으나 심청전과의 친근성은 떨어진다. 주인공인 바리공주와 심청이 여성으로서 고난을 극복하고 효도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신분적인 위상이 다르고 이 때문에 신분상승과정 유무가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심청의 아버지는 맹인이었으나, 바리공주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 더군다나 이들을 제외한 다른 등장 인물들은 서로 간의 유사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심청굿무가사설’은 소설 심청전이나 판소리 심청가와 내용이 거의 유사하므로 심청이야기가 가진 네 가지의 주요화소인 孝行說話, 人身供養說話, 開眼說話, 再生說話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심청전과 관련하여 여타 근원설화에 비해 화소적 근접성 가장 높다. 또한 등장인물들도 심청전과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2장에서 살쾩듯이 소설 심청전이나 판소리 심청가보다 후대에 나타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점이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孝女知恩說話’에는 효행설화의 화소가 강하게 나타난다. 효녀가 눈먼 어머니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종살이 하다가 화랑인 孝宗郎을 만나 기적적인 도움을 얻어 어머니를 풍족하게 봉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개안화소와 재생화소가 나타나지 않으며, 남의 집 종으로 자신을 팔기는 하지만 그것이 인신 공희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등장인물로 보면 심청과 지은은 효녀로서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고난의 정도가 심청이 지은에 비해 강하게 나타나고 이에 따라 보응의 양상도 더욱 극적이며 거대하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눈먼 이가 지은에게는 어머니로 심청에게는 아버지로 나타나는 점도 다른 점이다. 도움을 주는 인물로 중국 황제와 신라 국왕이 나타나는 점은 서로 유사하다고 하겠지만 그 중간 매체가 되는 인물들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심청전과 효녀지은설화는 효행설화로서의 유사성을 찾아볼 수는 있으나 여타 서사적 화소와 상황들은 가깝다고 하기 어렵다.

‘居陀知說話’에는 人身供養話素가 잘 나타나 있지만 심청전의 가장 중요한 화소인 孝行話素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리고 여타 開眼話素나 再生話素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화소적 접근도가 매우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등장인물들의 관련성은 매우 떨어진다. 주인공이 거타지설화에서는 남성

인데 반해 심청전에서는 여성이며, 여타 서사적 줄거리에도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국외의 설화인 인도의 ‘專童子·法妙長者說話’는 효행설화·개안설화·재생설화의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러나 그 문헌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 문헌소재를 확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유통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길이 없으므로 심청전의 근원설화로 인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주인공이 남자인 점, 황제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심청이야기와 상이한 점이다.

일본의 ‘사요히메(小夜姬) 설화’에는 효행설화, 개안설화, 인신공희설화, 화소가 잘 나타나 있으나, 재생설화 화소는 나타나 있지 않다. 심청과 小夜姬는 효녀로서 산 제물이 되고 각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을 뜨게 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인물이다. 그리고 小夜姬이야기에는 황제대신에 大和國司가 등장하는 점도 유사하다. 비교적 심청전설화와 닮은 꼴을 이루고 있지만, 2장에서 논한 바와 같이 이 설화가 우리나라에서 전승되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심청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근원설화로 볼 수는 없다.

위의 두 가지 국외설화에 비해 ‘目連尊者說話’는 우리나라에서 널리 전승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청전의 근원설화로 논의할 근거가 강하다. ‘목련존자이야기’에는 효행설화, 재생설화의 화소가 나타나지만, 심청전의 중요한 화소인 인신공희설화, 개안설화 화소가 나타나 있지 않다. 국내에 널리 전승되었던 국외설화임에도 불구하고 화소적 접근도에서는 많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심청전에서는 주인공이 여성이지만 ‘목련존자이야기’는 남성이 주인공이라는 점이 다르다. 심청전에는 화주승이 다라 등장하지만, 목련존자 스스로가 佛力을 지닌 승려라는 점도 상이하다. 심청은 이승에서 아버지를 구원하고, 목련존자는 저승에서 어머니를 구원한다. 그 밖의 등장 인물들은 서로 유사한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모두 불교적인 성격을 지녔고, 효행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IV. 판소리와 관련된 성 검토

3장과 4 장에서는 설화적인 측면에서 심청전의 근원설화의 위상을 검토해 보았다. 본장에서는 판소리적인 측면에서 근원설화들의 위상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원홍장이야기’는 상황묘사와 감정묘사 뛰어나며 대동사회의 이상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판소리적 성격과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판소리는 설화와 같이 기억하기 쉬운 줄거리를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줄거리보다는 각각의 상황과 정서를 이면에 맞게 해석하고 묘사하는 것을 중시한다. ‘원홍장이야기’에서 이러한 측면이 판소리와 같은 정도로 강하게 부각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야기 서술과정에서 이러한 면들이 중시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공이 원봉사를 설득·감화시켜 홍장을 보시 받는 대목’, ‘홍장이 아버지와 헤어지는 대목’, ‘진나라의 사신이 홍장과 만나는 대목’, ‘황제와 홍장이 만나는 대목’ 등에는 상황묘사와 정황묘사가 설화적인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홍장이 아버지와 헤어지는 대목을 묘사하면서 아래와 같이,

딸과 아버지가 애도해 마지않을 뿐 아니라, 산천도 빛이 변하고, 해와 달도 빛을 잃었으며, 새와 짐승도 슬피 울고, 길에서(이 광경을 보고들은 이들이 마음 아파하지 않는 이 없었다.²⁸⁾

라고 서술하고 있는 것은 그 상황과 감정을 묘사하는 수준이 매우 탁월함을 보여준다. 산천초목과 해와 달 새와 짐승에까지 감정을 이입하고 있는 것은 자연물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판소리의 일반적인 정서 표현 기법과 동질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기법면에서 희곡적 대화체 문장이 자주 사용된다. ‘성공이 원봉사를 설득·감화시키는 대목’ 과 ‘홍장이 진나라 사자와 만나는 대목’을 비롯하여 이러한 기법은 자주 사용되고 있다.

주제면에서 볼 때, 판소리에는 빈부귀천과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이 모두가 생명적 동질감을 느끼고 생명운화의 보편적 이상을 구현하려하는 이상이 나타나 있

28) 非但女與父哀悼不已, 山川變色, 日月無光, 禽獸亦哀號, 道路觀聽者無不痛楚 (『事蹟記』 3a)

다²⁹⁾. ‘원홍장이야기’에서도 이러한 이상이 잘 나타난다. 중생의 회노애락을 감싸고 풀어주려는 원홍장의 誓願과 이를 실현하는 관음의 모습에서 빈부귀천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이 만인을 공덕으로 포용하는 모습은 대동사회의 이상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원홍장이야기’의 전승배경이 판소리의 주요 전승지역과 가깝다는 점에서도 판소리와의 친근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원홍장이야기’는 기법적인 면과 주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가까운 판소리와 동질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여타 심청전 근원설화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판소리로 부르기에 용이한 작품이다.

‘黃泉巫歌 바리공주’와 ‘심청굿무가’는 창자와 반주자와 청중에 의해, 마당에서 연행된다는 점에서 판소리의 연행방식과 유사한 면이 있다. 창과 아니리로 연행된다는 점에서도 판소리 형식과 유사하다. ‘바리공주’는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심청굿무가’는 내용면에서도 판소리와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적 유사성이 오히려 판소리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점이 그다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孝女知恩說話’와 ‘居陀知說話’는 판소리와의 유사점을 찾기가 어렵다. 효녀지은 설화는 서민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판소리와 유사한 점이 있지만 ‘울리고 웃기기’의 양상이 극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설화적 성격이 여전히 강하다. 거타지설화는 서민의 이야기가 아니고 탁월한 능력을 지닌 영웅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판소리와는 역시 거리가 있다.

인도의 ‘專童子·法妙長者說話’는 그 전승방식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일본의 ‘小夜姬說話’도 그 전승방식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目連尊者說話’는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널리 전승되었던 것으로 俗講僧에 의해 講唱형식으로 불리어졌으리라 여겨진다. 이러한 강창형식은 판소리와 매우 유사한 점이 있다. 『釋譜詳節』과 『月印釋譜』에 수록된 ‘목련존자이야기’를 보면, 언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려한 구어체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한문·한자숙어 등을 배제하고 순우리말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대화체 문장을 써서 실제 회화에 가까운 문체

29)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판소리의 신명풀이 미학』, 박이정 (2001), 186~230 쪽에서 자세히 논의된 바 있다.

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들은 판소리와 유사한 점이다. 또한 목련은 우란분재를 베풀고, 심청은 맹인잔치를 베풀다. 목련과 심청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하여 희생적인 효도를 했을 뿐 만 아니라, 어려운 입장에 놓인 중생들을 위해서 대동잔치를 벌인다. 이러한 후반부 대동잔치는 판소리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³⁰⁾인데, 그러한 점에서도 ‘목련존자이야기’는 판소리와 친근성을 지니고 있다.

V. 맺음말

지금까지 필자는 ‘원홍장이야기’를 중심으로 하여 그것이 심청전 근원설화들 사이에서 지니고 있는 위상과, 심청전 근원설화들의 판소리적 성격을 아울러 검토해 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원홍장이야기’가 심청전과 가장 가까운 근원설화이며, 판소리로의 발전 가능성도 상당히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을 계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홍장이야기’는 寺刹緣起說話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이 부분을 제거해내면 심청전과 그 성격이 매우 유사하고 전승시기와 전승장소로 볼 때도 소설 심청전 및 판소리 심청가와 매우 깊은 관련성을 지닌다.

둘째, ‘홍장이야기’는 서사적인 면에서 심청전과 더욱 깊은 관련성을 지닌다. 심청전의 가장 중요한 서사적 화소라 할 수 있는, 孝行話素, 人身供養話素, 開眼話素가 모두 나타난다. 등장인물도 효녀 심청과 효녀 원홍장 아버지인 심봉사와 원봉사, 몽은(운)사 화주승³¹⁾과 대홍사 화주승 法空, 남경상인과 중국사신, 중국의 황제 등은 서로가 같은 기능을 서사적으로 수행하는 인물들로 동질성을 지니고 있다.

셋째, ‘홍장이야기’는 상황묘사와 감정묘사에 뛰어나고, 대동사회를 추구하는 주제의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판소리계소설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여타의 ‘黃泉巫歌 바리공주’, ‘심청굿 무가 사설’, ‘孝女知恩說話’, ‘居陀知說話’ 등 국내 근원설화와 인도의 ‘專童子·法妙長者說話’, ‘目連尊者

30)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앞의 책 186~196쪽에서 자세히 논의한 바 있다

31) 경관계열에서는 ‘명월산 운심동 개법당 화주승’으로 나타난다

說話', 일본의 '小夜姫說話' 등 국외 근원설화와 비교해 보았을 때, 더욱 친근성을 지니는 요소이다. 이로써 '홍장이야기' 여타의 근원설화들에 비해 심청전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홍장이야기가 기왕에 심청전과 관련되어 논의되어 왔으므로, 이에 대한 해명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홍장이야기는 그 자체로서 이미 문학적 완결성을 지니고 있는 훌륭한 작품이다. 심청전과의 관계를 떠나 그 자체로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으나 이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 김태곤, 『황천무가연구』, 서울: 창우사, 1966.
- 김태준, 「심청전의 연구」, 『조선소설사』, 경성: 학예사, 1939, 145~150 쪽
- 박광수, 「한국 목련전승의 유통양성」, 『맹관분재와 목련전승의 문화사』, 중앙문화사 2000, 403 쪽
- 사재동, 「심청전 연구서설」, 『한국고전소설연구』, 새문사, 1974, 18~23 쪽
- 정하영, 「심청전」, 『한국 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7, 542 쪽
- 정하영, 「심청전 근원설화 연구 서설」, 『국어문학』21,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0.
- 주왕산, 「설화 전설의 소설화: 심청전」, 『조선고대소설사』, 정음사, 1950.
- 최래옥, 「심청전의 층체적 분석」, 『심청전 연구』, 태학사, 1999, 46 쪽
- 최래옥, 「설화와 그 소설화과정에 대한 구조적 분석」, 『국문학연구』7, 1968, 114~117 쪽
- 홍순석, 「사찰연기설화연구」, 『설화문학연구(하)』, 서울: 단국대출판부, 1998, 291쪽.
- 허원기, 「신명풀이로 본 판소리의 연행방식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논문, 2000.
- 허원기, 『판소리의 신명풀이 미학』, 서울: 박이정, 2001.

주제어

심청전, 元洪莊이야기, 심청전 근원설화, 玉果縣聖德山觀音寺事蹟

[부록] 玉果縣聖德山觀音寺事蹟

余少時, 遊歷諸山, 幸到觀音寺, 私聞長老之說. 聖蹟曰,

忠清道大興縣, 有一盲人, 其姓元, 其名良, 早喪配耦, 鰥居窮困, 仍鮮族黨, 無所依賴. 惟一少女, 名洪莊, 生而淑美, 態度不凡, 性識通敏, 常以至誠勤養其盲父也. 志切反哺跬步不忘, 非特晨昏臥起, 左枝右梧而侍側, 亦衣服之需·飲食之味, 無不稱旨. 一境咸稱其大孝, 名聞華夏焉. 其盲父適有故出上邑路, 逢一僧, 乃弘法寺法堂幹善, 稱名性空者也. 忽見盲者趨拜曰, “欲與君同成金剛不朽之因, 幸公爲我大施也.” 盲者言, “以我奚丐求?” “若所欲, 豈不難哉?” 化士再拜而起曰 “吾受勸軸之日, 夢有金人誥吾曰, 明朝, 出路口逢盲人, 卽爲汝之大檀越也. 是以懇請” 盲人籌思移時而言曰 “家無斗儲, 野乏尺壤, 雖欲, 奚爲? 止有一少女, 以此與之, 卽賣而以爲法堂經營之資” 是時, 女年二八, 化士欣然, 告別, 非但女與父哀悼不已, 山川變色, 日月無光, 禽獸亦哀號, 道路觀聽者, 無不痛楚于衷焉. 女跋涉道途, 心力疲困, 乃憩於蘇浪浦岸. 擡頭西望, 須臾, 碧海上, 兩紅船自西而東, 疾如飛箭, 來泊津頭, 是乃中州涓人之船. 船上金冠玉佩繡衣使者, 熟視此女之韶顏絕色, 卽親拜謝於前曰, “眞是后也” 女變色曰 “是何言歟?” 使者曰, “吾晉國人也. 永康丁亥五月辛酉, 皇后崩, 自是, 上常惻然不已. 一夜夢有神人白 ‘上新皇后生於東國, 今已長成, 端正勝於前皇后, 更勿爲遊者而哀也’ 上欠伸而覺, 明日卽備幣帛四萬端, 金銀珍寶都載兩船, 又擇善相慧利者爲使者. 申命直馳東國, 持此物色衣樣求得. 小臣猥荷此任, 受命以來, 夙夜憂懼, 今幸覩盛儀, 乃敢發言.” 女歎曰, “填廩相應, 一身之去留, 何難之有, 蓋所持幣帛幾許?” 使者答焉, “滿載兩船珍寶.” 女微哂而言曰, “我身非我身, 乃父種善之奇貨, 兩船都附化士, 遂與計偕入上國” 朝謁之時, 月貌星眸, 光彩照人, 上視而歎曰, “以海隅之鰥域而如是之人哉!” 由是有寵, 所言皆從焉. 后稟性雅善彌天慈威, 欲行淨業, 乃勅石匠, 以瑪瑙造塔三千, 分列諸國後, 后曰, “身雖登於寶位, 豈能忘乎本國” 又勅成五十三佛·五百聖衆與十六羅漢, 點畢, 使舟人載三石船, 送本國, 浮海中流, 不施篙櫓, 風帆浪楫, 任其所之, 幸泊甘露寺前浦, 因安於此寺還了. 石匠雖老志願弘深, 使其子又造塔, 移置金剛寺四度塔, 則運立於豐德縣擎天寺後. 又素願成就, 募父曰, “爺之福田, 吾何獨無表, 精造佛與塔, 移安于大興縣弘法寺. 如是往復五度, 功德圓滿, 志願已畢. 然所欠者, 自願佛也, 則歸別宮, 倩工鑄成觀音一尊, 令叔人載石船送東國. 臨行, 后申命曰 “此像則須隨其所

止處，而奉安也。” 叔人受命向東國，漂流海中，已及碁矣。一朝忽隨風飄泊於樂安地斷橋側無河，此土邊守，疑是荒唐船也，追捕甚急之會，此石船無風自動入於渺茫中。翌日，玉果處女聖德氏，無端自出海上，獨立望遠，天海雲波縹緲中，一葉小石船，如有引物而來前。聖德奉觀船上金相觀音，忽發敬心，投體拜畢，親負觀音，輕如鴻毛，行到此嶺，重若泰山，一步不移，即休安置。仍建大伽藍，扁其額曰 聖德山觀音寺，良有以也。蓋弘莊與聖德，俱是觀音隨應之身歟！豈特牟尼分身百億於塵刹也。當時，化土性空得其財，不逾月斷功，盲人元良，從前別女之哀淚，盲眼忽明，具享休福而終壽九十五。此皆聖感冥應之跡，不可以泯沒者也。余所聞於長老者，止此而已。至若峯岩四圍之逶迤，溪壑一帶之清冽，人煙之負絕，洞府之幽闕，來者目之可略也。豈擁正己酉暮春，碧梧門人白梅子，因優閑子之所述，芟繁增削而書之。復記前後重創之跡，附之卷尾。